

‘그림책, 마법의 공간’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전주시, 29일~6월 29일 팔복예술공장·완산도서관 일원서 원화전시·강연 등 개최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을 한자리에서 마주하며 세계적인 유명 작가와 대면할 수 있는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전주에서 열린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완산도서관 일원에서 ‘그림책, 마법의 공간’을 주제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하 그림책도서전)’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그림책도서전의 주빈국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여하며 어린이 인권에 관심이 많은 나라인 ‘스웨덴’으로 정하고, 백희나와 사라 룬드베리, 에바 린스트룀, 키티 크라우더 작가를 주요 원화전시 작가로 초청했다.

올해 그림책도서전 장소도 팔복예술공장과 완산도서관 일원으로 확대해 전년보다 더 많은 시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그림책 작가의 원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원화전시 작가로 초청된 백희나, 사라 룬드베리 작가의 작품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에바 린스트룀, 키티 크라우더 작가의 원화는 완산도서관 전시실(완산마루)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포스터

전시 작품들은 도서관에서 ‘그림책 활동가 교육’을 이수한 지역 활동가들이 전시 해설과 그림책 읽어주는 방식으로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다.

이와 관련 원화작가로 초청된 백희나 작가는 지난 2020년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백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알사탕 △알사탕 제조법 △나는 개다** 등이 있다.

또 다른 초청작가인 스웨덴의 사라

룬드베리 작가는 올해 최고의 스웨덴 아동도서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저명한 그림책 작가다. 2017년에 쓰고 그린 그림책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로 아우구스트상을 수상하고 올해는 그림책도서전에서 전시될 ‘오로지 나만’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기도 했다.

에바 린드스트룀 작가는 스웨덴도서관협회가 최고의 그림책에 수여하는 ‘엘사 베스코브상’과 올해의 스웨덴 그림책에 수여하는 ‘스너블렌상’, 스웨덴의 대표 문학상인 ‘하우구스트상’을 수상하는 등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중 한 명으로 대표작으로는 **△돌아와, 라일라 △우리를 사랑하지 마** 등이 있다.

키티 크라우더 작가는 지난 1994년 발간한 그림책 ‘나의 왕국’을 시작으로 50여 권의 그림책을 펴내며 다수의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지난 201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대표작으로는 **△메두사 엄마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험** 등이 있다.

이 같은 원화전시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림책 콘퍼런스와 강연,

워크숍도 예정돼 있다.

사라 룬드베리 작가는 강연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독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키티 크라우더 작가는 성인 대상 댄스 드로잉 워크숍을 운영해 시민들과 색다른 시간을 가지게 된다.

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포트폴리오 리뷰와 아트마켓, 한-스웨덴 출판교류 세미나 등도 국내·외 그림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그림책 큐레이션 사이트인 디픽투스(DIPICUS)의 샘 맥컬런(Sam McCullen) 대표가 참여해 그림책 작가 지망생들의 다미북을 직접 리뷰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전국의 그림책 작가 지망생들에게 전주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그림책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상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마법같은 경험을 선사한다”며 “이번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 펼쳐질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마법같은 그림책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전주시, 강력 징수 활동으로 압류 성과 거둬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소지품 압류 및 현장징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 사업장 현황, 배우자 재산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5명을 최종 선정해 진행했다.

가택수색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합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하고 체납자 중 일부로부터는 가족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징수 받기도 했다.

압류 소지품의 경우 감정평가 후 2025년 9월경 전북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촉촉고지서 발송, 현장징수반 운영, 변호관 합동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는 20일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폐기물분야 담당공무원 및 위탁사 관계자들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주요내용 △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향후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희성 기자

적십자봉사단 완산구협의회, 다문화가정에 성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완산구협의회(위원장 박현희)가 중화산2동주민센터(동장 김용태)에 20일 다문화가정에게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완산구협의회 봉사회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사회적으로 불평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번 이웃돕기 전달의 취지로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10세대에게 전달했다.

박현희 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을 그리워할 다문화가정과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을 하는 등 복지사업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서 모두가 함께 행



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김용태 중화산2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역대 최대 성과 기록

162개 정원소재 업체 참여

28억원 규모 매출 달성

우리나라를 대표해 정원산업을 이끄는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가 매출과 규모 등 기존 기록을 경신하며 성황리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 박람회에 162개 업체 참여와 28억 원 매출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박람회 기간 중 33만7000여 명의 방문객이 박람회장 찾은 등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예년과 차별화해 B2C, B2B 거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전 현장투어를 추진하여 B2G 거래까지 활성화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장 상담



우리나라를 대표해 정원산업을 이끄는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매출과 규모 등 기존 기록을 경신하며 성황리 막을 내렸다.

2,358건을 비롯해 계약 15억원, 매출 13억원 등 총 28억의 매출을 달성하여 역대 최대 성과를 이끌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3회 정원박람회 매출(14억 원)과 비교해 2배,

전년 박람회 매출(17억 원)과 견줘봐도 10억 원 이상이 늘었다.

이 같은 매출 성장은 참여업체의 지속적인 증가 및 해가 지남수록 전국적인 인지도가 쌓였기 때문이다.

담당 박람회 참여업체는 지난 2021년 제1회 박람회에 39개 업체를 시작으로 2회 80개, 3회 103개, 4회 138개, 올해 열린 5회 박람회 162개 업체까지 증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